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병 식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말 춤의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미국을 넘어 파리, 런던을 거쳐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지구촌의 곳곳에서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4달이 채 안되어 세계 7억 명이 노래와 춤을 접했다고 한다. 한글로 만든 노랫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의 흐름으로 '제3의 물결'을 주장한 이후, 이 사이 현상이 우리가 접한 가장 극적인 경험이라 아니까 싶다.

아시아시대 21세기 변화의 핵심은 세계화이다. 유럽의 경제위기, 중국의 G2등장으로 인한 패권의 이동(power shift), 세계적 기업들 간의 무한 경쟁, FTA의 찬반, 국제행사의 다변화 등 세계화의 관련들이 우리의 일상 곁에 온지 벌써 오래다. '세계화'는 향후에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올 태세다.

대선이 한창인 중요한 시점에서, 다소 새삼스러운 '세계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여수 엑스포'와 'F1대회'를 비롯한 비교적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있었다. 향후

에도, F1대회는 몇 회 더 예정되어 있고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의 F1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여러 의견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견해 중 많은 부분이 우

공유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세계화는 대체로, 이 메가트렌드 속에서 이러한 국제 행사를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국제화 된 인력과 경험을 쌓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신명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은 많은 부분 동참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바깥은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제3의 물결로 출렁이는데, 우리는 앨빈 토플러의 제1의 물결로 농업화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이 향후 전남권의 미래에 대하

광주 및 전남의 지자체 봉천에 인재담당관제도를 두어 우수 인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핵심 인력을 확보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곳 출신의 우수재원은 밖에서 공부 를 마친 후 U턴하지 않고 있고, 외부인의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다. 고비용이 필요하고 유인 할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 지역과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외부인들이 의외로 많다.

조심스런 말이지만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 중에는 비판력이 뛰어난 이가 많다. 사실 이런 분들은 많이 필요치 않다. 100명중 3명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뽑으로 뛰는 97명의 우수한 일꾼이 필요하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농도는 3~3.5%가 적당하다. 이보다 높으면 사해가 되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비판보다는 일 하는 인재가 더 중요한 이유이다.

강조하고 싶다. 지금이, 우리 지역이 제3의 단계로 점프할 유일한 기회이다. 호남이라는 높은 담장을 헐고 토포악발(吐哺握發)의 정신으로 인재들을 불러 모아 바로 국제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농촌 산업화를 뛰어넘어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당대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화순 의약·백신연구소 건립 차질 안 된다

생물 의약·백신산업의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았던 화순 '프라온 호퍼 한국 연구소'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프라운 호퍼와 정부, 전남도가 합작 투자하는 이 연구소는 소장 선임 등 운영권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총 372억 원(국비 265억 원·지방비 62억 원·프라온 호퍼 45억 원)을 투자해 화순을 생물 의약과 백신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국고 12억 원을 들여 연구장비 일부 구입했고, 올해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가 등 15명을 채용, 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연구소 건립에 걸림돌이 됐다. 프라운 호퍼 측은 "아무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연구소 내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법"이라며 운영권·인사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는 "연구소장으로 한국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국내 관행상 상급기관 건립을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화순 임시 프라운 호퍼 연구시설에는 독일인 연구 인력을 한명도 없고, 합작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연구기관에 인사와 운영 등 직권을 주는 해외 연구소의 특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우를 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소 건립 파행은 교과부와 전남도에 책임이 있다. 자칫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프라운 호퍼와 협상이 최종 결정되면 자체 연구 내지 새로운 해외 연구재단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립이 지연될 경우 국비 등이 불용처리 돼 연구소 자체가 물거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남도는 프라운 호퍼 측과 재협상을 통해 전향적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실익을 따져야지만 관행만 내세우는 건 설득력이 없다.

'열악한 재정' 시교육청 청사 이전 재고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백지화했던 청사이전 사업을 재추진해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현황을 이유로 정부에 200억 원대 교육예산 추가자원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500여억 원이 소요될 청사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또 이전 검토중인 청사도 10억 원의 투입, 증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백지화했던 청사이전 사업을 재추진해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현황을 이유로 정부에 200억 원대 교육예산 추가자원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500여억 원이 소요될 청사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또 이전 검토중인 청사도 10억 원의 투입, 증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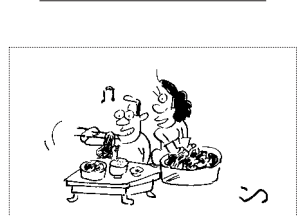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無 等 鼓

곰이나 개구리가 겨울잠에 들어가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은 김장을 서둘렀다.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반(半)식량'이자 비타민 공급원이었던 김장 김치는 겨울의 초인인 입동(立冬) 즈음에 담겨야 제 맛이 난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배추가 얼고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김장



김장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때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치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시대부터 먹어온 것으로 추정되니 김장도 그만큼 오래된 음식일 터이다. 속리산 법주사에 묻혀 있는 '석옹(石甕)'은 신라 성덕왕 때 설

김장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때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치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시대부터 먹어온 것으로 추정되니 김장도 그만큼 오래된 음식일 터이다. 속리산 법주사에 묻혀 있는 '석옹(石甕)'은 신라 성덕왕 때 설

김장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때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치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시대부터 먹어온 것으로 추정되니 김장도 그만큼 오래된 음식일 터이다. 속리산 법주사에 묻혀 있는 '석옹(石甕)'은 신라 성덕왕 때 설

김장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때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치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시대부터 먹어온 것으로 추정되니 김장도 그만큼 오래된 음식일 터이다. 속리산 법주사에 묻혀 있는 '석옹(石甕)'은 신라 성덕왕 때 설

김장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때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치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시대부터 먹어온 것으로 추정되니 김장도 그만큼 오래된 음식일 터이다. 속리산 법주사에 묻혀 있는 '석옹(石甕)'은 신라 성덕왕 때 설

바닷물 소금 농도가 3%인 이유

리지역의 취약한 국제인프라, 외국인들과의 접촉에서 나온 이런저런 미숙함, 국제행사의 경험 부족, 행사 측으로부터의 소외감, 소박한 시민들의 행사비용에 대한 걱정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영암이라는 작은 군단위에서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른다는 자부심에 관한 긍정적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대한 미래가치와 의미 그리고 실제적 손익과 대응책 등에 대한 사려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참조하고 자료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여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남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제 1의 물결에서 바로 제 3의 물결로 도약하기 위한 점프를 시도할 때이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법조칼럼



송 지 현

살다보면 나름대로 사회 규범 내에서의 의무를 다했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인간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남은 앙금과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요즘은 '2% 부족할 때'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작은 배려로 2% 채워주기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기 고



서 종 진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유통기한에 버려지는 식품 많아...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이후 A군은 불편한 B군의 가방을 매일 들어주고 심부름도 도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둘은 친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B군의 치료비는 물론 불편한 팔 때문에 망가진 교복이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서서히 사건은 잊혀졌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광동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